

6월 국가산업단지 공장가동률 83.6% 불과

국가산업단지 공장들의 가동률이 하락하고 생산이 감소했다.

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국 2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<6월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>에 따르면, 6월 공장가동률은 83.6%로 5월에 비해 0.1%p 하락했다.

생산은 23조3781억원으로 5월보다는 0.3% 감소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0.2% 증가했다.

가동률 하락은 고유가의 장기화, 원/달러 환율 하락,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가동률은 대기업(300인 이상)이 84.7%, 중기업(50-300인 미만)은 83.0%, 중소기업(50인 미만)은 76.0%로 조사됐다.

생산이 감소한 것은 대형 원유정제 공장의 여름철 정기 보수로 석유화학업종의 생산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했다.

국가산업단지 공장들의 6월 수출은 98억9000만달러로 5월보다 1.7%, 전년동월대비 16.9% 증가했다.

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출 증가와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및 품질경쟁력 제고 지속, 국산 자동차의 미국 및 서유럽 판매증가에 힘입은 운송장비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.

고용은 62만7665명으로 5월보다 0.5%, 전년동월대비 5.49% 증가했다.

<화학저널 2005/08/09>